

# 옥정호 개발,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 ‘수상레저단지 용역 중단 촉구’ 정치권까지 확산

### 정읍시민 대책위원회 “식수종합대책 먼저 세워야”

옥정호 개발 문제가 정읍지역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옥정호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확산하는 데다, 지방선거에서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용역 중단 약속’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안전한 식수를 지키기 위한 정읍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정읍시청 앞에서 ‘옥정호 수면개발 반대 시민 쉼터대회’를 열고 “전북도는 내용·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하는 옥정호

의 수상 레포츠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옥정호 뿐 아니라 19년간 입실과 정읍 간 지역갈등의 원인인 도원천 등을 포함하는 식수종합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요구했다.

옥정호가 12만 정읍시민의 식수원수인 상황에서 보트를 띄우는 수상레저산업을 추진하면 중금속을 포함한 비점 오염(유동적 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늘 수밖에 없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읍에서 출마하는 모든 선거직 후보들에게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용역 중단 약속’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정읍시의회와 정의당 등 정치권, 농민단체, 지역 자생모임 등이 가세, 참여 단체가 150여개 단체로 늘어나며 수상 레포츠단지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실질상 옥정호 개발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상황이다. 관련 지역 간 갈등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읍시, 입실군, 순창군 등 옥정호 수변 3개 시·군은 지난 2016년 8월 전북도 중재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데 지

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할 때는 시·군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입실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을 2015년 해제했다.

입실군 전체 토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옥정호의 상수보호구역 해제는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정 의결에 따른 것으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올해 3억원을 들여 옥정호에 수상 레포츠 시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지역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스다오 카페리 운항횟수 증편

### 주 3회에서 주 6회로

### 중 관광객 유입 기대

군산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스다오(石島)항을 오가는 카페리 운항이 주 3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중국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7~18일 중국 운남성 쿤밍(昆明)에서 열린 ‘제 2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항로 개방에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1993년부터 매년 해운회담을 열어 한·중 해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군산~스다오 간 카페리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기로 현재 주 3회 운항에서 주 6회 운항으로 서비스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4월 취항한 군산항 한·중 카페리는 사드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대비 여객 8%, 화물 3%가 증가했다. 특히 화물량이 늘어나면서 2000 TEU 이상의 화물 이탈이 발생,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운항횟수 증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카페리 운항 횟수 증편이 물동량 및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산시는 카페리 선박 2척이 추가로 운항할 경우 ▲5969억원의 경제효과 발생 ▲신규 일자리 1142개 창출 ▲국제여객선터미널 및 인근 새로운 상권 형성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군산시내 근대 역사관광지구 및 고군산군도도 지역 대표적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군산시는 향후 군산~스다오 간 카페리의 안정적인 운항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포트세일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박기섭기자 nogusu@

##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일대 야구거리 조성

### 8월까지 기념물·야구체험장 등 관광 명소로 활용

‘역전의 명수’라는 명성을 얻은 군산상고 일대가 야구거리로 조성된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상고 사거리부터 학교 정문까지 110m 구간을 ‘야구도시’와 ‘역전의 명수’ 이미지를 활용한 ‘야구 거리’로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군산상고는 지난 1972년 7월 부산고와 가진 제2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결승전에서 4대 1로 뒤지다가 9회 말 공격에서 과력을 발휘하며 5대 4로 역전승했다. 이 경기는 고교야구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으로 기억되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등 야구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군산상고는 이후에도 수차례 역전승을

일궈내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명언을 확인시키며 야구 명문고로 위상을 확고히했다. 군산도 ‘야구 도시’라는 명성을 떨치게 됐다. 군산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오는 8월까지 야구거리와 조형물, 기념물을 설치하고 야구 체험시설, 투구 연습장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상고에는 야구역사관도 꾸며 우수팀, 선수 사인볼과 유니폼, 우수 영상물 등을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상고 일대를 야구를 활용한 관광명소로 조성,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기섭기자 nogusu@



“어르신 따뜻한 떡국 드세요” 고창군 고수면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최근 고수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 떡국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창군 제공>

## 남원시 골목경제 활성화 힘쓴다

### 전통시장·지역 상품권 활용

### 상공인 소득 창출 방안 마련

남원시가 지역 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 정착’,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민 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광한루원 관광객 유입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비전을 마련, 추진중이다.

또 골목경제협회의제를 중심으로 골목상

인들의 의견을 수렴, 단순한 환경개선 사업 대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득창출 모델을 정립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정착을 위한 가맹점 확보, 정책 연계, 지불결제시스템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4억9500만원을 들여 남은 소방시설과 전기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문화관광형 시장 및 야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확보, 저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익산시 블로그기자단 발족 맞춰·관광지 홍보

익산시는 최근 시정 상황실에서 블로그기자단(사진) 발대식을 갖고 홍보 활성화에 나섰다.

13명의 블로그기자단은 발대식을 계기로 1년간 지역 현장을 돌아다니며 익산의 다양한 소식과 숨겨진 명소, 맛집, 관광지 등을 소개해 알릴 계획이다.

특히 올 가을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 장애인대회를 앞두고 대회 홍보와 개최 분위기 조성, 참여 열기 확산에 블로그

기자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로그기자단이 시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익산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 전파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공식블로그(https://hiksanin.blog.me)는 월평균 9만여명 장에이전제를 앞두고 대회 홍보와 개최 분위기 조성, 참여 열기 확산에 블로그

/익산=유정영기자 yjy@

## 어린이 뮤지컬 ‘출동 슈퍼윙스’ 27일 익산예술의전당

어린이 뮤지컬 ‘출동 슈퍼윙스’가 오는 27일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 세 차례에 걸쳐 익산예술의전당 무대에서 선보인다.

‘출동! 슈퍼윙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꼬마 택배비행기와 변신 비행기 친구

들,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번 뮤지컬은 ‘피라미드의 비밀’을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모습의 친구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 콘도 / 무인텔

- 전남 회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 분할매매가

###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